

# 한국 청소년

- 서울·싱가포르·타이베이 중학생 1천300명 비교조사

# 오락에 편중, 인터넷 기대치 낮아

글\_ 권영일 과학저널리스트 zeus@scinews.co.kr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도가 비슷한 싱가포르와 대만 청소년들에 비해 지나치게 오락 목적에 편중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설확충과 기능적 지식 전수도 중요하나 인터넷과 새로운 매체에 대해 보다 생산적인 태도, 취향, 목표를 길러주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앨라배마 주립대의 김용찬 교수와 일본 도쿄대의 정주영 연구교수는 최근 발표한 '90% 속의 정보 격차 : 서울, 싱가포르, 타이베이 청소년들의 인터넷 접속 양태에 대한 다층 비교 분석'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은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고 사용영역이 다양하지만 비교 대상국 청소년들보다 지나치게 오락 목적에 편중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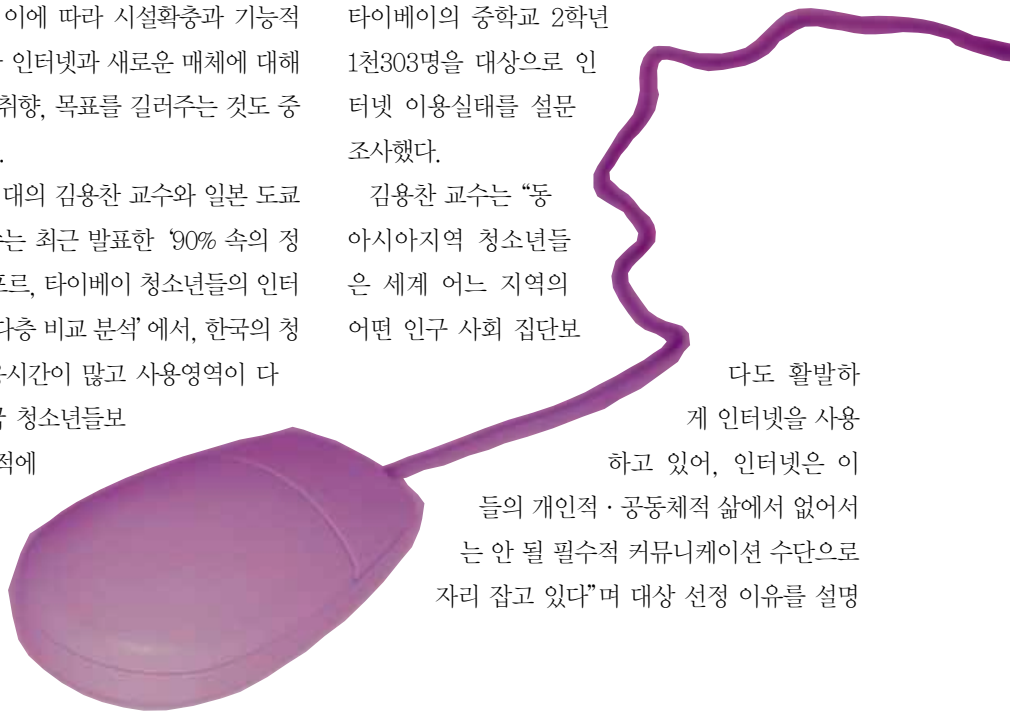
## 집 또는 PC방에서 대부분 인터넷 접속

김용찬 교수와 정주영 교수팀은 이를 위해 지난 2001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서울과 싱가포르, 타이베이의 중학교 2학년 1천30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실태를 설문조사했다.

김용찬 교수는 "동아시아지역 청소년들은 세계 어느 지역의 어떤 인구 사회 집단보

다도 활발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 인터넷은 이들의 개인적·공동체적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대상 선정 이유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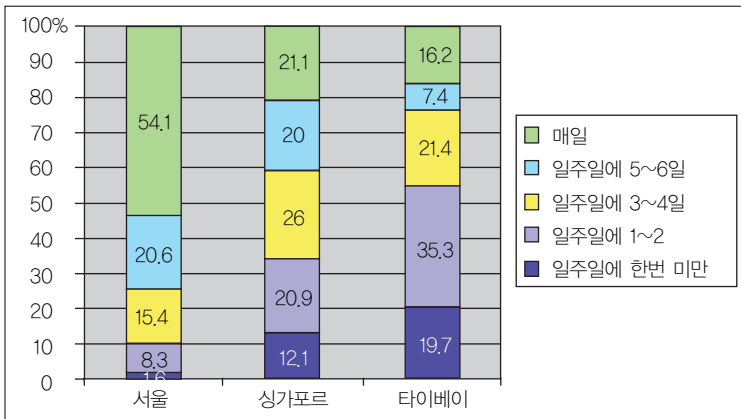
Science & Technology F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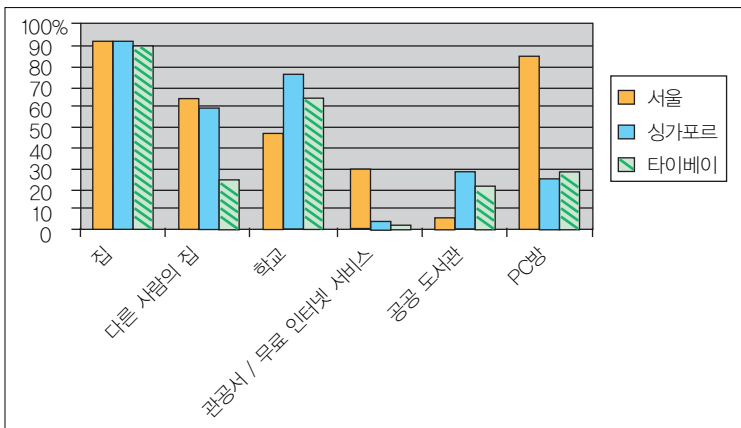
3개 도시 청소년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도와 소유도 (%)

	3개 도시 전체	서울 (n=456)	싱가포르 (n=462)	타이베이 (n=385)
컴퓨터 이용 (%)	99.2	99.6	98.5	99.7
인터넷 이용 (%)	95	97.8	94.7	91.9
가정 컴퓨터 소유 (%)	94.7	96.2	92.4	95.5
가정 인터넷 서비스 (%)	91.3	92.4	92.3	88.6

인터넷 접속 빈도 (%)



인터넷 접속 장소



했다.

표집방법으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단계 유층 할당 표집 방법'이 사용되었다. 서울의 경우 강남 지역과 강북 지역의 차이로 대표되는 지역간 사회-경제 수준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서울 시내 26개 구(區)를 구청의 지출 자립도에 따라 3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의 그룹에서 2개의 학교를 선발하였다.

그렇게 선발된 6개 학교 각각에서 무작위로 선발한 2개 학급을 대상으로 총 12개 학급에서 설문을 실시하였다. 지역간 소득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싱가포르와 타이베이의 경우 전체 중학교를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나누고, 각각의 학교 수에 비례해 대상 학교를 선발하였다.

이 결과 3개 도시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도와 소유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이용도는 서울과 싱가포르, 타이베이가 각각 99.6%, 98.5%, 99.7%, 인터넷 이용도도 97.8%, 94.7%, 91.9%였다. 그러나 인터넷 접속빈도는 '매일' 또는 '일주일에 5~6일' 접속한다는 응답이 서울 74.7%, 싱가포르 41.1%, 타이베이 23.6%로 우리 청소년들이 월등히 많았다.

또 인터넷을 가장 많이 접속하는 장소는 서울과 싱가포르, 타이베이 모두 90% 이상이 집을 꼽았으나, 두번째로 많이 접속하는 곳은 서울이 PC방(85.5%)인 반면, 싱가포르와 타이베이는 각각 76.8%와 63.8%가 학교를 들었다.

인터넷 접속장소의 다양성에서도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장소가 3곳 이상이라는 응답이 서울이 73.3%로 싱가포르(60.3%)와 타이베이(51.5%)보다 훨씬 많았다.

### e-메일, 음악, 게임수 이용 .. 질적 수준 떨어져

온라인 참여 활동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이 e-메일(94.0%), 음악다운로드(85.3%), 게임(83.7%) 등을 꼽았고 싱가포르는 웹서핑(87.9%), e-메일(87.2%), 음악다운로드(76.1%), 대만은 e-메일(84.0%), 음악다운로드(73.9%), 채팅(65%) 순이었다.

또, 인터넷이 각종 매체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인터넷을 가장 중요한 '오락과 휴식' 매체로 꼽은 응답자는 서울이 47.6%로 싱가포르(28.4%)와 타이베이(17.9%)보다 훨씬 많았다. 인터넷을 가장 중요한 '구매 관련 정보 습득' 매체로 꼽은 응답자도 서울이 43.4%로 싱가포르(36.1%), 타이베이(23.1%) 보다 많았다.

이런 가운데 3개 도시 청소년들의 대다수(서울:77%, 싱가포르:85%, 타이베이:76%)가 인터넷에 관한 도움을 친구들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형제자매가 뒤를 이었다(34~45%).

인터넷이 청소년들의 미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는 ‘인터넷에 대한 기대’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싱가포르와 타이베이 청소년들에 비해 기대치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래 직업적 성공을 위해 인터넷을 전문가 수준으로 사용해야 될 것’이라는 말에 동의하는 의견이 타이베이와 싱가포르는 각각 93.8%, 80.7%였으나

서울은 39.7%에 그쳤다.

또 ‘인터넷을 잘 쓸 줄 알면 장래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견에도 싱가포르와 대만 학생들은 각각 95.9%와 93.5%가 동의한 반면, 우리 학생들은 68.3%만이 동의했다.

‘인터넷을 배우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말에 동의한 비율은 서울이 12.1%로 싱가포르(3.2%), 타이베이(3.4%)보다 훨씬 높았고, ‘장래 직업 활동에서 인터넷을 쓸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서울(11.3%)이 싱가포르(8.2%), 타이베이(6.3%)보다 많았다.

김용찬 교수는 이와 관련, “한국 청소년들은 인터

각 목적별 가장 중요한 매체로서의 인터넷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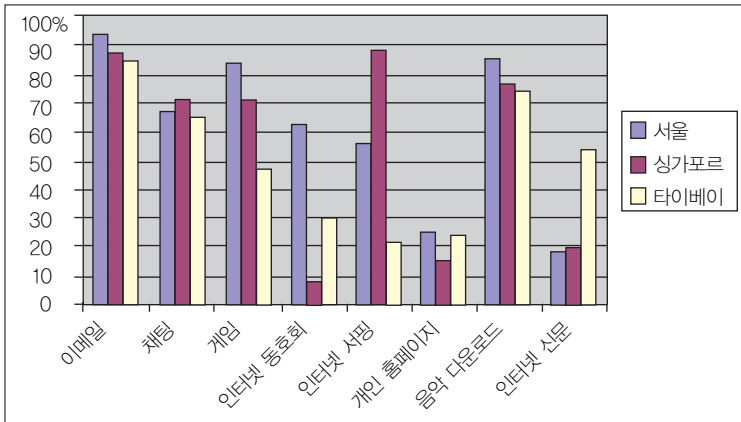
	사회관련 정보 습득			구매 관련 정보 습득			오락 및 휴식		
	서울 (n=456)	싱가포르 (n=462)	타이베이 (n=385)	서울 (n=456)	싱가포르 (n=462)	타이베이 (n=385)	서울 (n=456)	싱가포르 (n=462)	타이베이 (n=385)
신문	15.5	33.8	11.2	6.5	12.3	5.7	.7		1.3
TV	48.4	30.3	78.2	22.2	28.4	37.9	17.2	24.2	31.4
라디오	1.6	3.9	2.6	.2	1.9	1.0	.9	5.2	3.4
책	3.6	1.9	.5	.9	2.4	2.9	3.2	5.2	3.9
영화		.9	.3		.2		11.1	16.7	7.5
잡지	.7	.9	.3	15.3	13.4	22.6	.5	1.1	1.3
인터넷	26.2	22.7	4.2	43.4	36.1	23.1	47.4	28.4	17.9
핸드폰	.7	1.3		.4	.2	.3	1.6	.9	.8
음악 CD	.4	.6	.5	.2			9.0	13.0	30.4
사람들 과의 대화	2.9	3.7	2.3	10.8	5.0	6.5	8.6	5.4	2.1

인터넷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 양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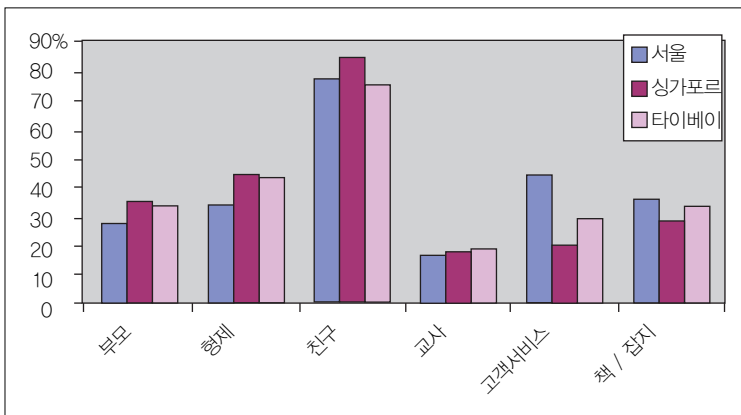
	서울 (n=456)	싱가포르 (n=462)	타이베이 (n=385)
나는 장래 직업적 성공을 위해서 인터넷을 전문가 수준으로 사용해야 될 것이다	39.7	80.7	93.8
인터넷 배우는 것은 시간 낭비다	12.1	3.2	3.4
아마도 나의 장래 직업 활동에서 인터넷 쓸 일은 없을 것이다	11.3	8.2	6.3
인터넷을 잘 쓸 줄 알면 장래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될 것이다	68.3	95.9	93.5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56.8	31.7	58.3
인터넷이 학교 성적을 높여 줄 것이다	45.0	75.7	85.7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귄다	83.6	74.0	75.0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알면 앞으로 더욱 더 윤택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86.2	95.3	89.1



온라인 활동 참여 유형



인터넷 관련 도움을 받는 사회 관계 유형



넷 사용의 양에서는 싱가포르와 타이베이 학생들을 대체로 앞서지만 현재와 미래 삶의 생산적 영역에 인터넷을 연결시키는 능력은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주영 교수도 "우리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생산적 활동에 이용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와 태도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보 격차를 단순히 컴퓨터의 소유 혹은 인터넷 접속 여부에 국한하지 않고, 인터넷 사용의 다층적 성격을 파악하고, 그러한 다층적 성격의 인터넷 사용이 개인의 사회, 경제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접속 위주의 정보 격차 정책에 질적인 격차를 고려하는 패러다임 수정이 요구된다. ⑤



글쓴이는 한국외국어대 불어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내외경제신문(현 헤럴드경제신문)에서 논설위원,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과학기술자협회 사무총장으로 재임중이다.